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들의 성인자녀와의 갈등 비교

崔 貞 惠

본 연구는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노인들과 도시지역의 노인들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촌노인들이 더 많은 갈등을 보였는데, 특히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통제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1차 집단으로 가족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이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성인자녀는 노부모를 위한 경제적, 신체적 부양의 절대적인 담당자의 역할을 해왔다(최재석, 1982).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겨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문화 규범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조상중심적, 부모중심적 가치관이 자녀중심적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으며, 개인이 가족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개인을 위한 가족이라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다.

노인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은 바로 성인자녀가 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노인에게 가장 큰 만족이나 행복의 대상자이면

서 고통과 불행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기혼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심한 갈등이나 불만,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구의 노인들도 친구의 죽음, 은퇴, 폐경, 이혼 등과 같이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하는 인생사건들 보다도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불만족이 노인들에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더 쉽게 유발시킨다. (송대현, 윤가현, 1989; 윤가현, 1991; Aldwin, Levenson, Spiro, & Bosse, 1989).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에게 있어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상황을 맞이하며 또한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여기에서 노년기의 특수성과 가족관계를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첫째, 노화에 따른 역할의 상실이나 변화, 신체나 정신건강의 약화, 자유로운 환경통제의 곤란 등으로 노인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자신의 권위와 가치, 심리적 자아를 예전의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노인 특유의 의존성 문제의 해결은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보다 높은 정신건강 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노인의 의존성을 경제, 신체, 사회, 심리적 의존성으로 구분한다면, 전자의 3가지는 정부나 사회단체, 전문가로부터 해결될 수 있지만, 심리적 의존성은 그 의존대상이 가족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4가지 의존성을 모두 가족에게 기대하게 된다. 즉 사회통념상 성인자녀는 효성으로 노부모의 의존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이해된다.

둘째, 인생의 만년에 접어들면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성은 연장자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높고 또한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노년기를 홀로 지내야 하는 비율이 높다. 노인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사망은 큰 충격을 주며, 이로 인한 슬

품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Kalish, 1976). 그중에서 노인들이 당면하는 고독감의 문제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생전에 감정적으로 의존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심각하다. 배우자의 사망은 의지대상자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누구에게나 재혼의 기회를 가져 서로 마음을 터놓고 깊은 감정을 교환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노년기의 재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노년기의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문제는 노년기의 역할 상실이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적응이란 노인이 일생동안 관여해 왔던 직업, 종교, 사회활동, 그리고 가족내에서의 역할 상실이나 변화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노인의 역할변화는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데, 경제의 주도권을 자녀세대에 이양했고,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역할도 끝났고, 오직 상징적으로 집안의 어른이라는 지위에 만족하는 상태를 칭한다.

이상에서 노년기의 특수성과 가족관계를 고찰했는데, 가족내에서 노인이 자녀들의 욕구와 상반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다고 이해된다 (유영주, 1991). 구체적으로 그 갈등의 원인은 노인과 성인자녀간의 세대차 그리고 노인의 의존성을 들 수 있다. 노인과 성인자녀간의 세대차의 원인은 cohort효과에 따라서 나타난 사회 및 정치적 경험, 자녀양육법, 종교, 문화, 가치관의 차이 등이다. 또한 노인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의존과 독립의 균형이 변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라는 매개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도와 주관적인 고통간의 높은 관련성을 지적했으며, 노인들의 통제수준이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Mercier, Paulson, & Morris, 1988). 즉 개인적 통제수준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보다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다 (최정혜, 1990 ; Mercier

등, 1988).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농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갈등을 지각하며,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은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경상남도의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450명으로, 그들은 최소한 1명의 기혼자녀를 둔 자들이다. 조사대상지역은 도시로는 마산, 울산, 진해 및 창원의 4개 지역에서 남성 62명과 여성 163명, 농촌지역에서는 고성, 김해, 밀양, 울주, 의령, 창녕, 함안 및 함양군에 소속하는 면단위의 8개 지역에서 남성 78명과 여성 147명의 자료를 얻었다.

(2) 조사절차

본 연구를 위한 1차 예비조사로 5명의 노인과 면접을 통해 질문지의 적합도를 살펴본 다음, 관련 분야의 교수 3인의 평가를 근거로 안면타당도를 얻었다. 2차 예비조사로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 각각 30명씩을 선정하여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검사지의 적합도를 재검증하였다. 본조사는 1991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임의표집으로 선정되었다. 질문지의 조사방법은 본연구자 및 훈련받은 면접원들이 노인정 및 호별방문을 통하여 직접 응답을 받았다. 면접을 마친 493명의 자료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한 도시노인 225명과 농촌노인 2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갈등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그리고 자기통제력 척도가 사용되었다. 갈등 척도는 본 연구자가 만든 노인과 성인자녀간의 갈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신뢰도계수 $r = .88$). 척도의 문항들은 3가지 요인들로 분석되었는데, 정서적 요인이 11문항, 가치적 요인이 7문항 및 경제적 요인이 6문항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형태는 3점, 척도로 갈등을 느끼지 않을 경우에 1점, 느끼는 편이면 2점, 확실히 느낀다고 생각하면 3점으로 채점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척도들은 Krause와 Tran(1989)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에 1점, '그저 그렇다'에 2점, '그렇다'에 3점을 주었으며(신뢰도계수 $r = .76$), 전체 점수에서 중앙치를 기준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자기통제력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물음에 동의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주었으며(신뢰도계수 $r = .63$), 전체 점수에서 중앙치를 기준으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60세에서 90세까지이며, 여성의 평균연령은 68.9세이고 남성은 67.9세였다.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할 경우, 도시여성은 68.9세, 도시남성은 69.3세, 농촌여성은 68.8세, 농촌남성은 66.8세였다. 기타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갈등의 분석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각한 갈등을 평균점수를 기준으

로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조사대상자의 수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농촌의 노인과 도시의 노인간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수(%)

사회인구학적변인구분	도 시	농 촌
연 령 전기(60-64세) 중기(65-74세) 후기(75-90세)	55(24.4)	64(28.4)
	124(55.2)	124(55.2)
	46(20.4)	37(16.4)
교육수준 무학 서당, 국졸 중졸이상	120(53.3)	136(60.4)
	76(33.8)	68(30.2)
	29(12.9)	21(9.4)
배 우 자 생존 사별	93(41.3)	99(44.2)
	132(58.7)	126(55.8)
나쁘다 주관적건강 보통이다 좋다	83(36.9)	83(36.9)
	102(45.3)	96(42.7)
	40(17.8)	46(20.4)
상 경제수준 중 하	46(20.4)	28(12.4)
	157(69.8)	164(72.9)
	22(9.8)	33(14.7)
생활형태 혼자 노부부 기혼아들가족 기혼딸가족 미혼자녀 기타	13(5.8)	26(11.6)
	24(10.7)	53(23.6)
	153(68.0)	106(48.0)
	11(4.9)	9(4.0)
	22(9.8)	24(10.7)
	2(0.9)	5(2.2)

에 차이를 보였는데, 농촌의 노인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자녀관계에서의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 square=39.645, $df=2$, $p < .001$). 또한 갈등의 영역을 재정적, 가치관적, 그리고 정서적인 면으로 나누었을 때, 농촌과 도시노인 모두 재정적인 면보다 가치관적이고 정서적인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노인의 경우, $F=46.35$, $p < .001$; 도시노인의 경

우, $F=86.78$, $p < .001$).

〈표 2〉 농촌과 도시노인의 갈등의 정도

갈등의 정 도	농 촌	도 시
	N(%)	N(%)
상	36 (16.0)	89 (39.6)
중	91(40.4)	88(39.1)
하	98(43.6)	48(21.3)

(3)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의 분석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자아존중감이 낮은 노인들이 높은 노인들보다 훨씬 많았으며, 자기통제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표 3〉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의 정도

구 분	도 시	농 촌
	N (%)	N (%)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140(62.1)	151(67.1)
낮은집단	85(37.9)	74(32.9)
자기통제력 높은집단	127(56.4)	155(68.9)
낮은집단	98(43.6)	70(31.1)

자아존중감의 경우, 노인들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chi^2=1.177$, $p > .05$), 자기통제력의 경우에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의 차이를 보였다 ($\chi^2=7.447$, $p < .01$).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자녀와의 갈등정도를 t -검증을 하였는데,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갈등이 컸다 ($t=2.30$, $p < .05$ 와 $t=3.45$, $p < .001$ 이었음). 자

기통제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 모두 통제력이 낮은 집단이 갈등이 컸다 ($t=6.03, p < .001$ 과 $t=3.03, p < .01$).

논 의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어떠한지를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들이 어느 집단보다도 소외된 집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시 기존의 노인문제의 연구들이나 노인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농촌노인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들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재정적인 면에서의 갈등보다도 가치관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자신이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이해의 대상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노인일수록 그러한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노인문제를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송대현, 윤가현 (1989) 노년기의 고독감 : I. 한국 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9, 64-78.
 유영주 (1991) 新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윤가현 (1991) 노년기의 고독감 : IV.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한국노년학, 11, 179-190.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최정혜 (1990)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변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4), 119-133.
- Aldwin, C. M., Levenson, M. R., Spiro, A., & Bosse, R. (1989) Does emotionality predict stress?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618-624.
- Kalish, R. A. (1976) Death and dying in a social context. In R.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 Y. : Van Nostrand Reinhold.
- Krause, N., & Tran, T. (1989) Stress and religious involvement among older blacks.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S4-S13.
- Mercier, J. M., Paulson, L., & Morris, E. D. (1988) Rural and urban elderly :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7, 68-7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660-756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380번지 진주교육대학 실업교육과 정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